

봄바람과 함께 철쭉의 향 느끼러

봄이 어느덧 절정으로 향하며 여름에게 손짓한다. 한겨울 내내 오매불망 기다렸던 봄이지만, 봄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은 채 애를 태우는 듯 찰나의 순간에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한다. 올 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봄 모습을 보기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었지만 5월을 맞이하며 드디어 봄이 그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낸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짧은 봄을 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꿈같은 봄날 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 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 본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봄을 만끽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춘향의 사랑이 스며있는 춘향제와 화사하고 향기 가득한 철쭉제를 앞 둔 남원이 바로 봄의 절정을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아닌가 한다.



바래봉 철쭉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꿈같은 향연, 춘향제
남원에서는 제89회 춘향제가 올해로 600년을 맞은 광한루와 요천일원에서 '공한춘몽(廣寒春夢)'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리는 올 축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축제로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사람이 꿈꾸는 축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춘향제의 모토는 '전통을 기반으로한 퓨전'으로, '이질적인 것들의 뒤섞임, 조합, 조화'를 뜻하는 퓨전은 다른 것과 합쳐지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어울림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제89회 춘향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퓨전을 통해 좀 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려한다. 물론 춘향제 주요공연은 전통을 기반으로 두고 펼쳐진다.

메인 무대인 완월정과 광한루각 무대에서 펼쳐지는 국악대전, 명인명창 국악대향연, 전통공연은 이러한 기반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2018 전북 건축문화상 대상에 빛나는 명품한옥 남원예촌에서 펼쳐지는 퓨전음악 공연이 대표적이다.

한옥이라는 우리전통 생활공간 안에서 재즈와 제3세계 음악이 빛어내는 퓨전 공연은 낯설기도 하지만 익숙하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품격 있는 공연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선녀들이 춤과 노래를 부르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승월교 아래에서는 전국의 B-boy들이 모여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는 방자춤 판과 7080 추억의 달빛 고고장 컨셉으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펼쳐지는 달빛춤판은 모두가 축제 한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봄의 절정을 노래하는 보랏빛 향기 철쭉
철쭉의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이다. 또한 남원은 '사랑의 도시'이며, 남원의 시화는 철쭉이다. 철쭉이 남원의 봄을 상징하는 꽃이 된 것은 '사랑의 도시' 남원에 있어서 어쩌면 숙명일지도 모르겠다.

남원의 철쭉은 도심에서 시작되어 점차 운봉을 타고 올라가 지리산에서 절정을 맞이한다. 도심에 핀 철쭉은 보통 홀로 자라기 때문에 그저 스쳐지나가는 꽃이지만, 지리산의 철쭉은 그 명성답게 구릉이 전부 철쭉으로 뒤덮여 있는 장관을 연출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다. 보랏빛 향기리는 노래처럼 지리산 바래봉 철쭉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향이 느껴진다.

특히 철쭉 군락은 모여 있기에 더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남원의 지리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철

쭉 군락지, 바래봉이 있다. 산등성이를 따라 죽 이어진 능선으로 이루어진 바래봉은 그 닦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탐방이 가능하다. 바래봉이라는 이름부터가 스님들의 밥그릇인 바리때를 얹어놓은 모습처럼 동그스름하고 순한 산릉으로 이루어져 봄은 이름이니 산행에 그리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적당히 힘이 들 때면 능선에 펼쳐진 철쭉 군락을 마주하면 올라갈 때 느꼈던 피로감을 가시게 해주고 청량감을 느끼게 해준다. 바래봉 철쭉의 백미는 정상에서 약 1.5km 거리의 팔랑치 구간이다.

이 곳을 보고 있노라면, 신이 인간에게 허용한 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는 눈이 호강하는 경치가 끝이 없이 펼쳐진다. 출지도 많지도 않은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의 날씨도 바래봉에서 맞게 되는 봄날을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 주며, 철쭉제 기간 지리산의 자연 속에서 허브와 함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에서는 라벤더 힐 페스타도 펼쳐진다.

라벤더 힐 페스타에서는 각종 허브 전시는 물론 허브힐링테라피와 버스킹, 족욕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스텝 미션까지 준비하고 있어 가족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영면 봉화산의 또 다른 철쭉
남원의 철쭉은 지리산 바래봉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영면 봉화산에 위치한 철쭉 역시 찾는 사람을 반기며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다. 높이 920m의 봉화산은 남원시 이영면과 장수군 번암면,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의 경계에 솟아 있다. 경계를 가르는 산이었던 만큼 소식을 전하는 봉화를 피운 데서 산의 이름인 봉화산이 유래했다. 봉화산은 예전에는 불을 피워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이제는 꽃을 피우며 사람들에게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곳의 군락은 바래봉에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또 다른 봄을 만끽하게 해준다.

양일규 남원시 홍보전산과장은 "남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이 지금 펼쳐질 예정으로 있다며, 봄날의 특별한 즐거움을 원한다면 춘향제와 철쭉제가 한바탕 신명나게 펼쳐지는 남원에서 평소 꿈꾸던 봄을 만끽해 보는 것 또한 이 봄을 추억 가득 보내는 하나일 것"이라며 남원을 소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8일부터 12일까지 '춘향제'에서 전통·현대 퓨전 공연 다채로워

남원 도심에서 시작 운봉 타고 지리산 절정 이루는 '바래봉 철쭉' 아름답게 핀 아영면 '봉화산 철쭉' 남원의 또 다른 봄 만끽하게 해줘



춘향선발대회



이영면 봉화산 철쭉

http://council.jinan.go.kr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제8대 진안군의회 |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